

# 챗GPT를 활용한 구약성경 연구의 가능성: 욥기 42장 6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중심으로\*

김준(감신대)

---

## 1. 서론

본 연구는 구약 연구에 있어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의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사례 연구로서 욥기 42장 6절의 주요 해석적 견해와 화자를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새로운 해석에 대해 분석하고 비평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sup>1</sup> OpenAI에서 개발한 챗GPT의 열풍은 이제 사회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11월 30일 출시된 이후 5일 만에 유료 사용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고, 두 달 만에 사용자 수가 1억

---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3S1A5B5A17089519)

1 Pieter van der Lugt, "Who Changes His Mind about Dust and Ashes?' The Rhetorical Structure of Job 42:2-6", *Vetus Testamentum* 64 (2014), 623-639; Troy W. Martin, "Concluding the Book of Job and YHWH: Reading Job from the End to the Beginning",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37 (2018), 299-318.

명을 넘어섰다.<sup>2</sup> OpenAI 사이트에서 챗GPT에게 “챗GPT를 한 단락으로 소개해줘”라고 입력했을 때 챗GPT는 다음과 같이 자신을 소개한다. “챗GPT는 OpenAI에서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을 구현하기 위한 대규모 언어 모델 중 하나로, 딥러닝 알고리즘 중 하나인 트랜스포머(Transformer)를 기반으로 합니다. 챗GPT는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의 핵심 요소인 자연어 이해(NLU)와 응답 생성(NLG)을 모두 수행할 수 있으며, 최근까지도 발전하고 있어 인간 수준 이상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sup>3</sup> 인공지능이 사람의 언어를 이해할 뿐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스스로 수준 높은 응답을 생성할 수 있다. 챗GPT의 응답은 단순한 응답을 넘어서 업무계획, 연구계획, 종합적인 검토, 기대효과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에 대한 응답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생성할 수 있다.

챗GPT의 파급력은 교육, 기업, 공공기관까지 미치고 있다. 그동안 보수적이던 학술지들도 챗GPT에 대한 견해를 수정하고 있다. 최근 주요 국제 학술지들은 챗GPT를 학술 논문에 사용할 수 없다던 기존 방침을 수정하여 논문 작성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네이처, 엘스비어 등 주요 학술지는 논문 작성 도구로서의 챗GPT 사용을 허가하였다.<sup>4</sup> 챗GPT를 활용한 연구 결과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국내 구약학에서도 챗GPT 및 인공지능과 관련한 연구성과가 보고되고 있다.<sup>5</sup>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구약학은 구약 연구를 위한 도구로써

2 <https://www.statista.com/chart/29174/time-to-one-million-users>.

3 <https://chat.openai.com/chat>. 이하 챗GPT의 응답은 본문에 챗GPT의 응답임을 밝히고 각주는 달지 않는다.

4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3030988711> (2023년 3월 10일 접속). 한국경제, “챗 GPT 탐탁지 않아하던 학계도… ‘논문 쓸 때 활용하라’ 입장 바꿔” (2023.03.09).

5 김창주, “인공지능과 구약성서: 무슨 상관이 있는가(읍 21:21)”, 「구약논단」 86집 (2022), 187-214; 박경식, “ChatGPT와 엔돌의 신성한 여인 이야기(삼상 28:3-25)의 상호맥락성(intercontextuality) 읽기를 통한 구약신학적 비평 연구”, 「구약논단」 93집 (2024), 154-187; 소형근, “포스트휴머니즘 시대에 인간과 인공지능 이해하기: ‘강한 인

생성형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사례인 챗GPT의 활용에 대해 활발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sup>6</sup>

본고의 목적은 욕기 42장 6절의 해석적 견해에 대한 분석 및 연구 과정을 통해 챗GPT의 활용성을 고찰하는 데 있다. 본고는 욕기 42장 6절에 가장 적합한 해석을 제시하기보다는 욕기 42장 6절의 연구 과정 중 챗GPT의 활용 가능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욕기 42장 6절은 욕기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이다(“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개역개정). 욕기 42장 6절에 대한 이해는 욕기 전체를 일관성 있게 해석하기 위해 중요하다. 이 구절은 욕이 최종적으로 자신의 고난 받던 상황을 신언설에 비추어 어떻게 이해했는지, 에필로그에서 욕이 회복된 이유는 무엇인지와 긴밀하게 관계되어 있다. 본고는 구약을 학문적으로 연구할 때 챗GPT 활용의 효용성과 정확성을 확인하고자 욕기 해석에서 중요한 본문인 욕기 42장 6절에 대한 주요한 해석적 견해와 밴 더 룩트(Pieter van der Lugt)와 마틴(Troy W. Martin)을 통해 새롭게 제안된 해석을 통해 분석한다.

본 연구가 욕기 42장 6절을 사례 연구로 사용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챗GPT가 구약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데 활용성이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해 히브리어 어휘, 구문, 해석학을 적용해 볼 수 있는 본문이다. 둘째, 챗GPT는 기존의 방대한 정보를 토대로 질문에 대

---

공지능’의 등장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구약논단」 86집 (2022), 247-273.

6 학술 글쓰기에서 챗GPT를 활용할 때 크게 “도구적”, “동행적” 접근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연구자는 챗GPT를 학술적 글쓰기에 부분적 혹은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도구적” 접근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자는 학술 연구와 글쓰기를 위한 도구적 역할로서 챗GPT를 사용할 수 있다. 둘째, 연구자는 챗GPT를 연구자와 마찬가지로 연구의 행위 주체로서 인정하고 함께 협력하여 연구하는 “동행적” 접근 방식이다. 향후 구약학에서도 챗GPT를 연구의 행위 주체로서 수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나, 본고는 챗GPT를 도구적으로 사용하는 접근을 통해 챗GPT 사용 가능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참조, 김종규, “생성형 인공지능과 학술적 글쓰기”, 「작문연구」 59집 (2023), 37-64.

한 응답을 생성하는데 욱기 42장 6절에 대한 해석은 오랫동안 다수의 학자에 의해 진행되었기에 충분한 정보가 있을 것으로 사료하였다. 셋째, 기존의 욱기 42장 6절에 대한 다양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욱기 전체를 일관성 있게 해석하는 데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기에 새롭게 제안 되었으나 국내에는 소개되지 않은 욱기 42장 6절에 관한 새로운 해석학적 견해, 즉 하나님을 욱기 42장 6절의 화자로 이해하는 견해를 분석하고 비평적으로 고찰한다.<sup>7</sup>

본고의 목적 및 필요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챗GPT의 학문적 활용 가능성이 제기될 뿐 아니라 허가되고 있는 시대에 구약 연구 과정에도 챗GPT 활용 가능성과 효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욱기 전체를 일관되게 이해할 수 있는 욱기 42장 6절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국내 구약학에 소개하고 분석하고 고찰할 필요가 있다.

## 2. 챗GPT를 통한 욱기 42장 6절에 사용된 히브리어 본문 연구 가능성

욱기 42장 6절의 히브리어 원문 **עַל־כֵּן אֱמַאֵס וְנִחַמְתִּי עַל־עֵפֶר וְאֶפֶר** 은 욱기 전체를 이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구절이다. 그러나 이 구절에 사용된 단어와 표현은 문법과 어휘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번역이 가능하다. 챗GPT가 히브리어 본문을 분석하여 연구에 사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생성하였다. “욱기 42장 6절의 히브리어 원문에서 해석상의 주요 쟁점이 되는 단어와 문법적 논의는 무엇인가?” 챗GPT는 1분 이내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성

7 Martin, 윗글, 299-318; Van der Lugt, 윗글, 623-639.

하였다. 챗GPT는 욱기 42장 6절 번역에 있어 중요한 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단락을 생성한다.<sup>8</sup>

욱기 42장 6절의 히브리어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עַל-כֵּן אָמַס וְנִחַמְתִּי עַל-פָּרָךְ וְאַפְרִי** 이 구절은 욱기의 결론부에 속하며, 욱의 태도와 그의 신앙적 반응을 표현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구절의 해석에는 몇 가지 주요 쟁점과 문법적 논점이 있습니다.

1. "אָמַס" ('em'as)

**단어 의미:** 이 단어는 히브리어 동사 "אָמַס"에서 유래하며, 일반적으로 "거부하다", "싫어하다", "포기하다"를 의미합니다. **쟁점:** 이 단어의 목적어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욱이 무엇을 "거부"하거나 "싫어하다"고 말하는지 불분명합니다. 욱이 자신의 말을 거부하는 것인지, 자신의 태도를 포기하는 것인지, 혹은 어떤 다른 것을 거부하는 것인지 논란이 있습니다.

2. "וְנִחַמְתִּי" (wēnihamtī)

**단어 의미:** 이 단어는 히브리어 동사 "נִחַם"에서 유래하며, 문맥에 따라 "위로받다", "후회하다", "뉘우치다"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문법적 형태:** 니팔(수동형 또는 반사형) 동사의 1인칭 단수 완료형입니다. **쟁점:** "후회"의 의미로 볼 것인가, 아니면 "위로받다"는 의미로 볼 것인가? 이 단어가 "אָמַס"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해석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욱이 스스로를 위로하거나 뉘우치는 대상이 "티끌과 재"임을 뜻하는지, 아니면 "티끌과 재에 대하여" 뉘우치는 것인지 논란이 됩니다.

3. "עַל-פָּרָךְ וְאַפְרִי" ('al-'āfār wā'eper)

**단어 의미:** "פָּרָךְ"은 "흙" 또는 "먼지"를 뜻하며, 인간의 연약함과 죽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אַפְרִי"는 "재"를 뜻하며, 회개나 애통을 상징합니다. **쟁점:** "עַל-פָּרָךְ וְאַפְרִי"의 전치사 "עַל"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위하여", "위에서", 혹은 "대하여" 등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문맥적으로, 욱이 "티끌과 재" 위에서 회개하거나 애통하고 있는 것인지, 혹은 티끌과 재를 비유로 사용하여 자신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4. 문맥적 논점

욱기 42:6은 욱의 결론적인 자기인식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강조하는 절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의 해석은 욱이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철저한 회개:** 욱이 자신의 이전 말을 후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한다는 해석. **위로와 인정:** 욱이 하나님의 권능과 섭리를 인정하며 위로받고 있음을 강조하는 해석.

8 챗GPT의 답변은 단락 사이를 구분하는 줄과 문장 사이의 간격이 넓어서 제한된 학술지의 지면에 그대로 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본 챗GPT의 답변은 처음 생성된 답변의 내용은 그대로 하되 생성된 단락 사이의 줄과 문장 사이의 간격을 줄이도록 요청한 후 얻은 답변이다. 답변의 내용은 처음 생성된 답변과 같다.

생성된 답변은 챗GPT가 기본적으로 히브리어를 인식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성경의 히브리어 본문에 대한 학습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히브리어 본문의 원어와 함께 원어를 읽을 수 없는 사람을 위해 음역을 제공한다. 그리고, 히브리어 단어의 사전적 의미, 상징적 의미, 문법적 형태, 구문에 대한 학습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생성된 답변에 발견된 오류도 있다. על-עפר ואפר 음역에서 אפר의 모음 중 장모음으로 표기되어야 하는 체레가 단모음으로 표기되었으며, פ의 음역이 עפר에서는 f로 뒤의 אפר에서는 p로 다르게 표기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오류에 대해 여러 차례 질문했을 때, אפר의 모음에 대해서는 몇 차례 정확한 표기로 수정하기도 하였다. פ의 음역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챗GPT가 히브리어 문법적인 내용(다게쉬 포르테와 레네)을 통해 설명하고 있지만, 적합하지 않은 설명을 적합한 것처럼 설명하는 할루시네이션 증상을 보였다. 히브리어의 모음 및 발음 표기의 오류를 제외한다면, 챗GPT는 연구를 시작할 수 있는 적절한 대답을 생성하였다. 챗GPT에서 생성된 단락은 6절의 주요 쟁점이 되는 단어와 문법에 대해 간략하지만 중요한 논점을 언급하고 있다.

챗GPT가 생성한 첫 주요 쟁점은 אָמַן와 관련한 논점이다. אָמַן는 어근 מָאָן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거부하다”, “싫어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라는 사전적 정의를 소개한다. 쟁점에서는 “이 단어의 목적어가 명시되지” 않았기에 욕이 거부하거나 혹은 싫어한 대상(목적어)이 무엇인지가 쟁점이라고 언급한다. 챗GPT는 짧게 요약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욕기 연구에서 אָמַן에 대한 쟁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

동사 אָמַן는 מָאָן의 Qal 1인칭 미완료형의 타동사로서 일반적

으로 목적어가 필요하나, 6절에서 목적어가 생략되었다.<sup>9</sup> 읍이 무엇을 거절, 철회, 혹은 혐오하는지 그 대상이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성경 번역본들은 וְאֶת־מִנְיָתִי를 번역할 때 그 대상을 추론하여 다양하게 번역한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개역개정),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들이고”(새번역), “제 말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공동번역), “I despise myself”(NRSV, NIV, ESV), “I abhor my words”(JPS), “I recant”(TNK). 다양한 번역들은 크게 두 가지로 번역하였다. 첫 번째는 그 대상을 읍 자신, 자신의 말 혹은 자기 생각으로 추론하여 번역한 재귀적인 의미의 번역이다.<sup>10</sup> 읍이 자신이 이전에 했던 주장이나 생각을 철회 혹은 혐오한다는 의미이다, 대부분의 번역이 첫 번째 견해에 포함된다. 두 번째 견해는 목적어를 추론하기보다 원문처럼 목적어를 생략하는 것이다. TNK의 번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챗GPT가 생성한 두 번째 주요 쟁점은 וְאֶת־מִנְיָתִי와 관련한 논점이다. 챗GPT는 וְאֶת־מִנְיָתִי가 ׀נח׀으로부터 유래하였으며, “위로받다”, “후회하다”, “늪우치다”의 의미를 갖고, 문법적으로 Niph'al 동사의 1인칭 단수 완료형이라는 사전적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 단어가 읍이 후회하거나 늪우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읍이 위로받는 것으로 이해

9 “이 동사는 성서 히브리어에서 qal 형태로 보통 타동사로 사용된다. 4회의 예외(욥기 7:16; 34:33; 36:5; 42:6)가 있지만, 목적어는 항상 명시된다(66회).” William S. Morrow, “Consolation, Rejection, and Repentance in Job 42:6”,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05 (1986), 214.

10 학자들은 대부분의 번역본처럼 읍이 자신 혹은 자신이 이전에 했던 생각, 주장, 말을 경멸, 취소, 철회하는 것으로 번역한다. “despise”(Good), “recant”(Janzen, Hartley), “retract”(Habel). Edwin M. Good, *In Turns of Tempest: A Reading of Job, with a Translati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0), 171; Norman C. Habel, *The Book of Job* (Old Testament Librar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5), 575; John E. Hartley, *The Book of Job*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88), 535; J. Gerald Janzen, *Job* (Interpretation. Atlanta: John Knox, 1985), 251; Carol A. Newsom, “The Book of Job”, *The New Interpreter's Bible* 4 (Nashville: Abingdon, 1996), 629; Morrow, 위긱, 211-215.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한다. 욥이 무엇인가에 대해 위로받거나 혹은 이전에 했던 것에 대해 뉘우치는 두 가지 견해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특히 וְנִחַמְתִּי가 “위로하다” 혹은 “뉘우치다”라고 번역될 때 그 다음에 있는 וְעַל-עֵפֶר וְאֶפֶר와의 관계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있다는 쟁점을 언급한다. 챗GPT는 וְנִחַמְתִּי와 관련한 쟁점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지 않지만 중요한 쟁점은 명확히 언급하고 있다.

앞으로의 논의를 위해서 한 가지 첨부한다면, נִחַם이 Niph'al형으로 사용될 때, 사람이 주어인 경우는 대부분 대상에 대해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란 의미가 있다.<sup>11</sup> 반면에 하나님이 주어로 나타날 경우는 대부분 대상에 대한 후회와 뉘우침의 의미에서 “자신의 마음을 바꾸다, 결정을 철회하다”란 의미가 있다.<sup>12</sup>

챗GPT가 생성한 세 번째 주요 쟁점은 וְעַל-עֵפֶר וְאֶפֶר와 관련한 논점이다. 챗GPT는 עֵפֶר (“흙”, “먼지”)와 אֶפֶר (“재”)의 사전적 의미와 상징적인 의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구약에서 עֵפֶר는 상징적으로 죽을 운명의 연약한 인간 존재를 의미하고, אֶפֶר는 회개와 애통과 관련됨을 언급한다. 이 구절에서 “티끌과 재”는 문자적으로 장소를 의미할 수도, 상징적으로 애통, 회개, 인간 존재의 연약함 등을 의미할 수도 있다. 챗GPT는 이 두 단어 앞에 사용된 전치사 עַל이 두 단어와 관련하여 “위하여”, “위에서”, “대하여” 등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는 쟁점을 언급한다.

위의 וְנִחַמְתִּי וְעַל-עֵפֶר וְאֶפֶר에 대한 쟁점에서 챗GPT가 다루지 않은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 첫째, 두 단어 וְעַל-עֵפֶר וְאֶפֶר가 함께 사용된 사례가 구약에 총 세 차례 나타난다(창 18:27; 욥 30:19; 42:6). 창세기 18장 27절은 아브라함이 소돔의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11 Van der Lugt, 윗글, 630.

12 윗글, 630.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라고 간구할 때 사용한다. 욥기 30장 19절은 하나님의 권능과 비교하여 자신의 비천한 존재를 언급할 때 사용한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욥 30:19). 두 경우 모두 하나님과 비교하여 비천한 인간 존재를 의미한다. 이 두 경우처럼 אָפֶר וְאָפֶר가 관용적 의미가 있다면, 욥기 42장 6절도 이 두 단어를 하나님의 권능 앞에 비천한 욥 자신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구약에서 동사 נחמ in 전치사 על과 함께 사용될 때 목적어는 장소가 아닌 사람 혹은 추상명사가 사용된다는 점이다.<sup>13</sup> 그렇다면 장소를 의미하는 “티끌과 재 위에서” 혹은 “티끌과 재 가운데”라는 번역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가 된다. 만일 “티끌과 재”가 장소의 개념이라면 애도 혹은 슬픔을 상징하는 추상적 의미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서 אָפֶר וְאָפֶר가 관용적으로 비천한 사람을 상징하는 데 사용된 것을 고려한다면 אָפֶר וְאָפֶר על-נחמתי는 티끌과 재로 상징되는 인간 욥 자신에 대해 “위로받다” 혹은 “생각을 고치다”라는 해석이 적합하다.

욥기 42장 6절의 히브리어 원문에서 해석상의 세 가지의 주요 쟁점이 되는 표현에 대해 위와 같이 언급한 후 챗GPT는 욥기 42장 6절의 해석은 언어학적 쟁점뿐 아니라 구문적, 신학적 이해를 함께 고려해야 욥기 전체를 해석하기 위한 최선의 번역을 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린다. 연구자는 챗GPT가 생성한 답변에 기반하여 챗GPT가 생성할 가장 명료한 해석을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청했다. “그렇다면 욥기 42장 6절의 히브리어 원문에서 해석상의 주요 쟁점이 되는 단어와 문법적 논점을 고려했을 때, 가장 명료한 번역은 무엇인가?” 챗GPT는 “해석상의 주요 쟁점”, “번역의 근거” 등을 설명하며, 추천 번역으로 “그러므로 나

13 Dale Patrick, “The Translation of Job XLII 6”, *Vetus Testamentum* 26 (1976), 369-371.

는 내 말을 거부하고, 티끌과 재 위에서 회개합니다”를 생성하였다.

이 번역은 한글 성경 중 새번역과 가장 가까운 번역이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새번역). 챗GPT는 אָמַתּ of 생략된 목적어가 욥 자신이 “깨닫지도 못한 말을 하였고”(욥 42:3)라는 맥락을 고려하여 “나는 내 말을 거부”한다고 번역한 후, וְנִתְמַחִי를 회개(뉘우침), 그리고 עַל-עֵפֶר וְאֶפֶר를 “티끌과 재 위에서”라는 장소의 개념으로 번역한다. 챗GPT는 “티끌과 재 위에서”라고 번역하면서도 이 번역은 미천한 존재로서의 욥 자신을 상징하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한다. 챗GPT는 기존에 학습된 정보를 중심으로 단락을 생성하므로 전통적인 번역을 도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 3. 욥기 42장 6절의 주요 해석들

본 장은 욥기 42장 6절의 해석에 대한 선행연구에 있어 챗GPT의 활용 가능성을 연구한다. 먼저 챗GPT를 통해 욥기 42장 6절의 해석에 대한 선행연구에 대해 질문을 작성한다. 그리고 연구자의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과와 챗GPT의 결과를 비교분석 한다.

욥기 42장 6절은 욥기 전체를 일관성 있게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구절이다. 이 구절의 해석이 중요한 만큼 6절에 관한 연구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여기에 사용된 단어와 표현은 어휘와 구문적으로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어 여러 가지 해석이 제안되었다. 챗GPT가 42장 6절의 해석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어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생성하였다. “욥기 42장 6절은 욥기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구절입니다. 욥기 42장 6절 해석에 대한 선행연구를 조사하려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의 견해가 있는지 조사한 후, 대표적인 세

가지 견해로 분류해 주세요. 그리고 각 견해를 주장한 학자와 그들의 서적, 학술 논문 제목 및 페이지 수를 알려주세요. 세 견해에 대한 비평도 알려주세요.” 이에 대해, 챗GPT 아래와 같이 답변을 생성하였다.

### 1. 전통적 해석: 욥의 회개

**주요 내용:** 욥이 자신의 무지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וָנָח'(*mā'as*)은 "자신을 멸시하다", 'וָנָח'(*nāham*)은 "회개하다"로 번역됩니다. **대표 학자 및 저서:** 요한 칼빈 (*Commentaries on the Book of Job*, p. 362), 매튜 헨리 (*Matthew Henry's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 Vol. 3, p. 180). **비평:** 1. 욥이 일관되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 맥락과 상충될 수 있습니다. 2. 욥의 회개가 하나님의 응답과 욥의 최종적인 복구 사이에서 부조화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 2. 수정주의적 해석: 욥의 항변

**주요 내용:** 욥이 자신의 무죄를 끝까지 고수하며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여기서 'וָנָח'은 "거부하다", 'וָנָח'은 "위로를 받다"로 번역되며, 욥은 자신의 고난과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새로운 위로를 얻는다는 해석이 제시됩니다. **대표 학자 및 저서:** 데이비드 클라인스 (*Job 38-42, Word Biblical Commentary*, Vol. 18B, p. 1235), 캐롤 뉴스햄 (*The Book of Job: A Contest of Moral Imaginations*, p. 242). **비평:** 1. 회개의 요소를 부정하면 욥기 42장의 구조적 맥락에서 결말의 힘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2. 욥의 발언이 하나님의 응답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3. 언어적 해석: 욥의 변모와 화해

**주요 내용:** 욥이 회개나 항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과 위로를 얻었다고 해석합니다. 'וָנָח'은 "위로하다", 'וָנָח'은 "인간의 나약함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대표 학자 및 저서:** 사무엘 발렌타인 (*"Look at Me and Be Appalled": Essays on Job, Theology, and Ethics*, p. 198), 마크 스미스 (*The Pilgrimage Pattern in Exodus*, p. 87). **비평:** 1. 본문의 핵심 동사 해석이 전통적인 문맥을 지나치게 벗어난 것으로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나치게 은유적으로 해석하면 욥기의 역사적·신학적 의미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해석은 욥기 42장 6절이 욥기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각 견해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챗GPT가 각 견해를 매우 짧게 요약하고 있기에 설명이 충분하지 않고, 문장 사이가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아 이해가 잘되지 않는 부분이

www.kci.go.kr

보인다. 연구자는 챗GPT가 생성한 답변이 짧은 관계로 제공한 견해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지하였기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각 견해를 분리하여 챗GPT에게 질문을 하였고, 챗GPT는 더욱 충분하고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제시하였다.

챗GPT의 중요한 오류 중 하나는 챗GPT가 제시한 대표 학자의 저서를 확인하였을 때 제시한 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오류 중 데이빗 클라인스와 캐롤 뉴섬의 저서에 대해 질문했을 때, 챗GPT는 정확한 정보를 찾기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언급한다. 챗GPT가 자신이 생성한 정보의 출처가 정확히 어디인지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질문뿐 아니라 학술적인 정보의 출처를 요청하는 경우 정확한 출처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학자들의 한글 이름 표기도 어색한 경우가 많았다. 학술 연구를 위한 정확한 정보의 출처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갖고 있지만, 챗GPT가 제공한 대표적인 세 견해는 연구자가 조사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연구자는 선행연구를 통해 종합한 세 가지 견해를 욕기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인 속죄적 해석, 저항적 해석, 실존적 해석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속죄적 해석은 욕기 42장 6절을 욕의 회개로 해석하는 견해이다.<sup>14</sup> 이 해석은 챗GPT가 “전통적 해석: 욕의 회개”로 구분한 해석에 해당한다. 회개라는 용어는 죄 혹은 기존의 잘못된 입장을 뉘우치는 것을 의미한다(NRSV, NIV,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번역). 이 경우 욕기 42장 6절은 חָנַף לְפָנָיו를 “회개하다”, “취소하다”, “철회하다”로 번역할 수 있으며, נִוּוּחַתָּא를 “뉘우치다”, “회개하다”로 번역할 수 있다. 그리고 נִפְתָּח

---

14 Hartley, 윗글, 537; Habel, 윗글, 577; Georg Fohrer, *Das Buch Hiob* (KAT 16, Gütersloh, 1963), 536; Michael V. Fox, “Job the Pious”,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117 (2005), 351-366.

על-עפר를 읍이 앓아 있던 장소의 개념(“티끌과 재 위에서”) 혹은 상징적 개념(“티끌과 재에 대해”)으로 하나님 앞에 티끌과 재와 같이 미천한 존재인 읍 자신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개역개정처럼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로 번역할 수 있다. 앞선 챗GPT가 추천한 번역 “그러므로 나는 내 말을 거부하고, 티끌과 재 위에서 회개합니다”도 회개로 해석하는 견해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견해는 전통적인 해석으로 42장 6절을 읍이 자신의 죄, 의로움에 대한 자만심, 혹은 하나님에 대한 비판적인 언어에 대해 뉘우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 견해는 읍이 신언설을 통해 자신의 잘못 혹은 부족함을 깨달았다는 전제하에 읍이 자신이 말한 것을 뉘우친 것으로 해석한다. 읍의 회개는 읍기 에필로그에서 하나님이 읍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견해에 대한 비평은 읍의 고난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었기에 죄에 대해 회개로 해석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읍 1:1, 8, 22; 2:3, 10). 또한 에필로그에서 읍이 하나님에 대해 한 말이 옳다고 평가한 것에 비추어 볼 때(읍 42:7), 읍이 자신이 이전에 하나님에 대항했던 말을 뉘우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sup>15</sup>

두 번째 저항적 해석은 읍기 42장 6절을 읍의 저항으로 이해하는 견해이다.<sup>16</sup> 챗GPT의 두 번째 견해 “수정주의적 해석: 읍의 항변”과 공유하는 부분이 많다. 이 견해는 읍이 제기한 불의한 상황에 대해 신언

15 Francis I. Andersen, *Job: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76), 315; Jan P. Fokkelman, *The Book of Job in Form: A Literary Translation with Commentary* (Leiden: Brill, 2012), 317; Good, 윗글, 376.

16 John B. Curtis, “On Job’s Response to Yahweh”,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98 (1979), 497-511; David Robertson, “The Book of Job: A Literary Study”, *Soundings* 56 (1973), 446-509; Habel, 윗글, 577.

설이 구체적 응답을 하지 않았다고 본다. 신언설은 욱의 질문에 응답하기보다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통해 욱을 침묵시키고 있다고 이해한다. 그러므로 욱은 계속 항변하는 대신 역설적, 냉소적으로 응답함으로써 반항적인 뉘앙스를 함의하고 있다는 견해이다. 번역은 첫 번째 속죄적 견해처럼 하되 그 말에 역설적, 냉소적 뉘앙스를 함의하고 있다고 본다. 저항적 견해의 장점은 욱이 시적 대화에서 취했던 자신의 의로움에 관한 주장, 신적 정의를 요청하는 욱의 도전이 일관되게 유지된다는 점이다. 반면, 이 견해의 단점은 하나님이 욱의 냉소적인 응답을 알지 못한 채 에필로그에서 욱의 삶을 회복했다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견해는 에필로그에서 하나님이 욱을 회복시킨 것과 일관성이 없다는 비평을 받을 수 있다.

세 번째 실존적 해석은 욱이 신언설을 통해 인간으로 대변되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 새로운 이해를 얻었음을 고백 혹은 위로받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이다.<sup>17</sup> 챗GPT의 세 번째 해석 “언어적 해석: 욱의 변모와 화해”에 해당한다. 욱이 하나님께 항변했던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듣지는 않았지만, 욱이 신언설을 통해 티끌과 재와 같이 미약한 자신의 존재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의미가 있는 것을 이해하고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에 관해 위로받거나 생각을 바꾼 것으로 이해한다.<sup>18</sup> 이 견해를 따른다면, “그러므로 내가 내 주장을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에 대해 위로받습니다(혹은 티끌과 재에 관한 생각을 고칩니다)”로 번역할 수 있다. 이 견해는 하나님과 욱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견해로 볼 수 있다. 서론에서 욱의 시험이 시작된 이유가 욱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면, 욱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

17 Janzen, 윗글, 6-57; Good, 윗글, 377.

18 안근조, “욱기 42:6 번역의 문제와 제안”, 『성경원문연구』 31 (2012), 48-56; Janzen, 윗글, 6-57.

서도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해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표현한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험이 끝났기에 에펠로그에서 하나님은 욥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견해에 대한 비평은 결국 욥이 신언설을 통해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안에서 자신의 고난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위로받지만,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응답을 듣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또한 이 견해는 앞선 두 견해와 마찬가지로 욥기 42장 7절과 관련하여 해석할 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욥기 42장 7절은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로 시작한다. 욥기 42장 2-6절을 욥의 발언이라고 이해한다면, 7절의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라는 구절은 맥락상 이해하기 어렵다.

챗GPT가 제시한 욥기 42장 6절에 대한 세 가지 대표적인 견해는 연구자가 조사한 세 가지 대표적인 견해와 유사한 결과를 도출했음을 알 수 있다. 챗GPT와 본 연구자가 비평했듯 기존의 세 가지 견해는 욥기 전체를 일관성 있게 해석하는 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 특히 욥기 42장 2-6절과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라는 구절로 시작하는 욥기 42장 7절 사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 4. 챗GPT를 활용한 욥기 42장 6절에 대한 새로운 해석적 견해 분석

본 장은 새롭게 제안되었으나 국내에는 소개되지 않은 욥기 42장 6절에 관한 해석적 견해를 분석하여 욥기 42장 6절을 통해 욥기 전체를 일관성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해석적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최근 밴 더 룩트(Pieter van der Lugt)와 마틴(Troy W. Martin)은 각각 욥기 42장 4-6절과 5-6절을 하나님의 말로 이해하고 욥기 42장 1-6을 욥과 하

나님의 짧은 대화로 제안하였다.<sup>19</sup> 본 장은 챗GPT를 통해 욥기 42장 6절을 하나님의 발언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챗GPT의 응답을 확인한 후 벤 더 룩트와 마틴의 해석을 분석한다.

### 1) 챗GPT를 활용한 42장 6절을 하나님의 발언으로 해석할 가능성 탐구

벤 더 룩트와 마틴의 해석을 분석하기 전에 그들의 주장에 대한 정보가 학습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챗GPT에게 욥기 42장 6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장한 학자의 저서 및 학술 논문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챗GPT는 “현재까지의 검색 결과로는 욥기 42장 6절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해석한 특정 학자의 이름과 그 내용이 포함된 저서나 학술 논문의 제목을 찾기 어렵습니다”라고 단락을 생성하였다. 챗GPT가 벤 더 룩트와 마틴의 학술 논문에 대한 정보가 학습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챗GPT에게 새로운 해석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것을 확인 후, 42장 2-6절과 7절에 언급된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라는 구절 사이의 어려운 해석적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챗GPT에게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챗GPT는 다음과 같이 응답한다.

---

19 Martin, 윗글, 299-318; Van der Lugt, 윗글, 623-639.



### 1. 하나님의 말씀은 암묵적 연속성을 가진다

이 견해에 따르면, 42장 7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38-41장에서 욥에게 말씀하신 긴 연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즉, 42장 2-6절은 욥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며, 42장 7절은 앞선 하나님의 연설과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해석입니다. 이 관점은 문맥적 일관성을 강조하지만, 42장 7절이 42장 2-6절과 직접 연결되지 않음을 간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2. 42장 2-6절에서 하나님의 응답은 암시적으로 존재한다

일부 학자들은 욥의 독백(42:2-6)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암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즉, 하나님의 응답이 직접적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욥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해석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본문 속에서 묵시적 대화와 암시를 강조하며, 독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을 더 깊이 탐구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하나님의 직접적 발화가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3. 서술적 편집의 표현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라는 구절은 단순히 문학적 서술 기법으로, 독자에게 사건의 순서를 안내하기 위한 장치로 보기도 합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42장 2-6절은 욥의 독백이며, 7절에서 서술자는 독자에게 하나님이 욥과의 대화를 끝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 상황임을 설명하려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본문의 구조적 특징을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욥의 응답 간의 긴밀한 연관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생성된 챗GPT의 답변은 욥기 42장 7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말씀이 신언설을 의미하거나(욥기 38-41장),<sup>20</sup> 욥의 독백(42:2-6)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포된 것으로 해석하거나, "독자에게 사건의 순서를 안내하기 위한" 문학적 서술 기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그러나 각 견해가 욥기 42장 2-6절과 42장 7절 사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음도 비평한다.

위의 챗GPT 답변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발언이 있을 가능성은 배

20 참조. Ellen van Wolde, "Job 42:1-6: The Reversal of Job", W.A.M. Beuken ed., *The Book of Job*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1994), 238.

제하고 있다. 그래서, 밴 더 릭트의 제안처럼 욥기 42장 4-6절을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챗GPT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욥기 42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라고 에필로그를 시작한다. 그렇다면 앞선 욥기 42장 2-6절의 일부분(욥 42:4-6)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챗GPT는 “욥기 본문 해석의 복잡성을 드러내는 흥미로운 질문”이라고 언급하며 두 가지 가능성을 언급한다. 첫째, 욥이 42장 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욥 38:3; 40:7)을 인용하였는데, 이 부분이 42장 7절과 연결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둘째, 본문에는 없지만, 하나님이 “욥에게 묵시적 또는 내면적인 방식으로 추가로 응답하셨다고 해석할 가능성”을 제안한다. 챗GPT는 이러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명시적인 기록이 없기에 42장 4-6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다는 견해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챗GPT가 학습한 자료들이 42장 2-6절을 욥의 발언으로 이해하고 있기에, 새로운 견해에 대해 창의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챗GPT가 새로운 해석에 대한 이해가 없기에 그 해석에 대한 정보를 학습시키기 위해 밴 더 릭트와 마틴의 학술 논문을 PDF 형식으로 업로드한 후, 챗GPT에게 분석을 요청했다. 챗GPT는 업로드된 마틴의 학술 논문을 다음과 같은 단락으로 생성하였다.

## 주제

이 논문은 욥기 42:2-6의 결말 부분을 새롭게 읽어, 전통적 해석들이 논문의 일관성을 제공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본문의 법적 프레임에 초점을 맞춘 대안적 해석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이 구절에서 일부는 욥의 말이고 일부는 여호와와 발언이라고 보며, 이를 통해 욥기의 주요 신학적 문제(고난, 하나님의 정의, 욥의 의로움)를 통합적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 내용 요약

### 1. 전통적 해석의 문제

기존 해석들은 욥의 말로만 42:2-6을 이해하며, 이를 회개, 위로, 혹은 존재론적 깨달음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욥기가 제기한 주요 문제, 특히 하나님의 정의와 욥의 고난의 이유를 만족스럽게 해결하지 못합니다.

### 2. 새로운 시각: 법적 문맥과 화자 전환

42:1-7은 법적 프레임 안에서 읽어야 하며, 이는 법정에서 진행되는 소송 절차와 유사합니다. 42:2-4는 욥의 발언이며, 이는 욥이 하나님을 법적으로 기소하려는 의지를 표현합니다. 그러나 42:5-6은 여호와와 답변으로, 여호와가 자신의 태도를 바꾸고 욥에 대한 소송을 철회한다고 해석됩니다.

### 3. 욥기 42:5-6의 새로운 해석

**42:5:** 여호와와 "내가 귀로 들었으나 이제는 내 눈으로 보았다"고 말하며, 욥의 의로움과 신실함을 인정합니다. **42:6:** 여호와와 "나는 내 소송을 철회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티끌과 재"는 여호와가 욥의 고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그의 잘못을 속죄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 4. 신학적 의미

이 해석은 여호와가 자신의 불공정한 행동(욥기 2:3)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써 욥의 의로움을 온전히 복구합니다. 이어지는 42:7-17에서 여호와와 욥의 친구들을 꾸짖고, 욥에게 두 배의 복을 주어 법적 보상을 완성합니다.

챗GPT는 짧은 시간 안에 두 학술 논문을 분석하고 요약하였다. 제한된 시간에 많은 자료를 연구해야 하는 연구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챗GPT의 내용 분석 및 요약은 연구자에게 동료 연구자의 의견을 나누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 2) 마틴과 밴 더 렉트의 새로운 해석: 욱기 42장 6절을 하나님의 발언으로 해석

마틴은 욱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법정 소송의 이미지를 통해 욱기 42장 6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한다. 마틴은 욱기 42장 2-4절을 욱의 말로, 5-6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한다.<sup>21</sup> 마틴에 의하면, 욱기 42장 2-3절은 욱이 하나님의 권능은 알았으나, 욱이 진정으로 원했던 고난에 대한 응답은 듣지 못한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욱기 42장 4절의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향한 욱의 도전적인 질문으로 해석한다. 이 질문은 욱의 발언으로부터 하나님의 발언으로 전환하는 신호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발언을 위한 도입부가 생략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욕의 최후 질문에 하나님은 마침내 대답한다. “내가 너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너를 보았다”(5절). 마틴은 욱기 서론에서 하나님은 욱과의 경험적인 관계가 없었기에 욱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한 지식을 갖고 있었으나, 시험을 통해 욱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보게 되었다고 이해한다. 그리고 마침내 6절에서 하나님은 욱에게 고난을 허락한 것을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에서 회개한다. 마틴은 하나님이 욱에게 행했던 가혹한 고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티끌과 재 가운데 있던 욱 옆에 앉아 회개한다고 해석한다. 하나님의 진정한 회개는 욱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마틴의 해석은 이어지는 욱기 42장 7절(“여호와께서 욱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과 욱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에필로그의 내용과 일관성이 있는 해석을 제공한다.

---

21 Martin, 윗글, 299-318.

마틴의 해석은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한 것에 대해 뉘우치며 욥과 함께 앉아 회개하는 것으로 해석함으로 욥과 하나님 사이의 진정한 관계 회복으로 이해해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욥기 42장 5-6절을 하나님의 발언으로 이해하는 독창성을 통해 욥기 전체를 일관성 있게 해석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마틴의 해석은 위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첫째, 하나님의 욥에 대한 태도가 갑자기 변화한다는 해석이 문맥상 이해하기 어렵다. 하나님은 욥의 끈질긴 주장을 듣고도 신언설에서 욥에게 미안해하거나 위로하지 않았다. 마틴은 욥기 42장 2-4절을 욥의 도전적 발언으로 이해했음에도, 5-6절에서 하나님의 태도가 갑자기 변화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맥상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하나님이 갑자기 욥에 대해 새로 알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욥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가혹했던 시험을 회개하는 것은 정황상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둘째, 마틴은 욥기 42장 4절의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발언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다. 욥기 42장 4절은 욥이 하나님의 발언(욥 38:3; 40:7)을 인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나님은 욥기 38장 3절과 40장 7절에서 욥과 비슷하게 말씀하시지만, 그 후 이어지는 발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발언이다. 그렇다면 욥기 42장 4절은 화자가 전환되는 사인 역할을 하기보다, 화자였던 욥이 계속 발언을 이어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가혹했던 시험을 한 것에 대해 회개하고 티끌과 재에 앉는다는 해석은 구약 신학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견해이다.

마틴은 욥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법정 소송의 이미지를 통해 욥기 42장 6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한다면, 벤 더 렉트는 욥기 42장 2-6절에 대한 수사학적 구조 분석을 통해 욥기 42장 6절을 욥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로 제안한다.<sup>22</sup> 밴 더 룩트는 42장 6절을 “그리고 나는 먼지와 재에 대해 연민한다”라고 해석하며, 하나님이 인간을 상징하는 “먼지와 재”인 욥에 대해 연민을 갖고 욥에 대한 마음을 바꾸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연구 내용에 기반한다.

첫째, 욥기 42장 2-6절의 수사학적 구조는 각각 삼행으로 구성된 욥(42:2-3)과 하나님(42:4-6)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sup>23</sup> 형식적 측면에서 볼 때 욥의 말은 시작하는 2절과 끝나는 3절에 각각 וְאֵלֹהִים와 전치사 וְעַתָּה를 사용하여 욥의 말을 둘러싸며 하나의 구분되는 문학적 구조를 이룸으로써 4-6절로부터 구분된다. 또한 욥의 말이 끝나는 3절과 하나님이 말이 끝나는 6절에는 각각 וְעַתָּה(42:3)과 וְעַתָּה(42:6)이 전략적으로 사용되어 욥과 하나님의 말을 마무리하는 표현으로 사용한다.<sup>24</sup>

둘째, 욥기 42장 4절은 명령형으로 시작하며 화자가 욥에서 하나님으로 변화된 것을 알려 준다.<sup>25</sup> 신언설에서 하나님이 욥과 대화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은 명령형을 사용하였다(욥 38:3; 참조 40:2). 밴 더 룩트의 주장처럼 하나님이 4절의 화자라면, 4절은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너에게 묻겠다. 너는 내게 알게 하라”라고 번역할 수 있다. 욥이 3절에서 신언설을 인용(욥 38:2)한 것처럼, 하나님도 신언설을 인용(욥 38:3; 40:7)하여 말씀하신다.

셋째, 밴 더 룩트는 욥기 42장 5절을 하나님이 욥의 말을 유사 인용(quasi-quote)했다고 이해한다.<sup>26</sup> 욥이 직접 한 말은 아니지만, 욥이 깨달을 수 없었던 하나님께 속한 지혜를 표현했던 언어(욥 28:21-24)와 욥의

22 Van der Lugt, 윗글, 623-639.

23 윗글, 623-626.

24 윗글, 623-626.

25 윗글, 634-636.

26 윗글, 636-637.

고백(욥 42:2-3)에 기반하여 하나님께서 욥의 말을 유사 인용했다고 제안한다. 욥이 욥기 42장 3절에서 하나님의 말을 인용했듯, 5절에서는 하나님이 욥의 말(욥 28:21-24)을 인용하여 사용했다는 제안이다. 유사 인용에 담긴 욥의 응답은 신언설을 통해 욥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음을 표현한다. 욥의 고백은 하나님과 욥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욥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이전에 욥에게 했던 태도를 철회하고 “티끌과 재”와 같은 욥을 긍휼히 여기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밴 더 렉트는 6절을 다음과 같은 의미로 이해한다. “그러므로 나는 이전 언설들에서 드러난 나의 공격적인 태도를 거부하며, 나의 완고한 피조물인 너를 불쌍히 여긴다(6절).”<sup>27</sup>

넷째, 욥기 42장 6절의 화자를 하나님으로 이해할 때 에필로그와 연결에 있어 일관성이 있다. 42장 1-6절 이후 시작되는 에필로그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라는 구절로 시작한다(욥 42:7). 이 표현은 42장 2-6절에 여호와의 발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 해석처럼 욥기 42:2-6이 모두 욥의 말이라면 42장 6절과 7절 사이에는 하나님이 말했지만 기록되지 않은 장면이 생략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이 생략되었다고 추정할만한 내용이 에필로그에는 언급되지 않는다. 밴 더 렉트의 견해처럼 42장 4-6절을 하나님의 말로 이해한다면 4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라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에필로그에서 하나님이 욥의 삶을 회복시키는 근거도 명확히 알 수 있다.

요약하면, 밴 더 렉트의 해석은 욥기 42장 4-6절의 화자를 하나님으로 이해한다. 하나님은 욥의 발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그동안 욥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던

27 윗글, 639.

것을 거부하고, 티끌과 재와 같은 피조물인 욱을 위로한다고 해석한다. 욱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은 욱을 불쌍히 여김을 통해 관계가 회복된다. 이 해석은 “여호와께서 욱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욱 42:7) 욱의 삶을 회복시킴으로써 욱기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벤 더 렉트의 주장은 욱기 전체를 일관성 있게 이해하는데 새로운 해석적 관점을 제시한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욱기 42장 2-6절을 하나님과 욱의 대화로 해석한다는 점에서 독창성이 있다. 그러나, 그의 주장에는 기존의 주요한 해석들처럼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첫째, 벤 더 렉트는 5절을 하나님의 발언으로 보면서도, 하나님이 욱의 발언을 가정하여 유사 인용했다고 제안하였다. 하나님은 이를 기반으로 6절에서 욱을 공허히 여기게 되고 7절부터 시작되는 욱의 회복과 일관성 있는 해석을 한다. 벤 더 렉트가 제안한 5절의 욱의 유사 인용은 욱이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욱의 이전 발언을 통해 욱의 발언을 표현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가능성은 있지만 입증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만약 이 해석이 받아들여진다면, 이전에 챗GPT가 욱기 42장 7절의 “여호와께서 욱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라는 발언이 욱의 발언(욱 42:2-6)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암시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이해한 견해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인 해석 가운데 욱기의 일관성 있는 이해가 가능하다면 42장 6절을 하나님의 발언으로 새롭게 해석할 중요한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 둘째, 벤 더 렉트는 수사학적 구조와 문맥을 통해 하나님이 화자임을 제안하지만, 그의 분석은 42장 2-6절을 욱과 하나님의 대화로 이해하기 위한 형식적 분석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42장 4-6절에서 하나님이 주어로 명확히 나온 경우가 없으며, 욱기 42장 2-6절의 화자를 욱으로 이해하는 전통적인 견해의 수사학적 연구가 본문을 설명하는 데 더 명료할 수 있다.



벤 더 릭트와 마틴의 견해는 욥기 42장 6절을 하나님의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는 독창적 관점을 통해 욥기 전체를 일관성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해석적 견해를 제공하였다. 특히 욥의 고난에 대해 하나님께 위로받고 사과를 받는다는 점에서 욥이 끈질기게 질문했던 그의 고난에 대해 위로받았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그러나 욥기 42장 6절에 대한 대표적인 해석적 견해들이 욥기 전체의 이해를 위한 일관성 측면에서 비평할 점들이 있었던 것처럼 벤 더 릭트와 마틴의 견해도 비평할 점들이 있다.

마지막으로, 챗GPT가 벤 더 릭트와 마틴의 학술 논문을 학습한 후 욥기 42장 6절을 하나님의 발언으로 해석할 가능성에 대해 재평가하도록 하였다. 챗GPT는 욥기 42장 6절에 대한 주요한 해석적 견해를 이미 학습하였고, 새로운 해석적 견해도 학습하였기에, 챗GPT가 가장 적합하다고 분석한 견해가 무엇인지 재평가도 필요하였다. 연구자는 챗GPT의 응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위의 벤 더 릭트와 마틴의 학술 논문은 42장 6절을 하나님의 발언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두 학자의 해석적 견해와 욥기 42장 6절에 관한 대표적인 세 가지 견해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챗GPT는 어떤 해석이 욥기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좋은 해석으로 분석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챗GPT는 위의 해석적 견해들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다음과 같이 결론을 도출한다.

### 3. 챗GPT의 분석: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

챗GPT는 대표적인 세 가지 견해와 두 학자의 독창적인 해석을 비교한 결과, **Pieter van der Lugt**의 해석이 욕기의 전체적인 신학적 메시지와 문학적 구조를 이해하는 데 가장 설득력 있다고 분석합니다.

- 이유:
  - 욕기 42:6을 하나님이 하신 발언으로 보며, 욕의 고난과 하나님의 태도 변화를 조화롭게 설명한다.
  - 42:7-8에서 하나님이 욕의 의로움을 인정하는 결말과 일치한다.
  - 시적 구조와 문맥적 연결을 통해 해석의 논리적 기반을 강화한다.

Troy W. Martin의 해석도 매우 독창적이고 흥미로우나, 하나님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한다는 해석은 신학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van der Lugt의 해석은 욕기의 신학적 메시지인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균형 있게 전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챗GPT는 새로운 해석적 견해에 대한 정보가 없었을 때는 욕기 42장 6절을 하나님의 발언으로 이해하는데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했으나, 새로운 자료를 학습한 후에는 새로운 정보를 취합하여 욕기 42장 6절을 하나님의 발언으로 이해하는 것을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으로 재평가한다.

### 5. 결론

본고는 구약 연구에 있어 챗GPT의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사례 연구로서 욕기 42장 6절의 주요 해석적 견해와 밴 더 룩트와 마틴에 의해 제안된 새로운 해석적 견해에 대한 분석 및 연구 과정을 통해 챗GPT의 활용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본고는 연구 과정 중 챗GPT를 학

술 연구의 도구로 활용하여 히브리어 본문에 대한 정보 수집, 본문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학습된 자료를 기반으로 새로운 해석의 창출, 새로운 학술 자료 분석, 새롭게 추가된 자료를 포함한 종합적 의견 생성이 가능한지 고찰하였고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첫째, 욥기 42장 6절의 히브리어 본문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챗GPT는 히브리어 본문을 생성하였으며, 본문 안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의 사전적 의미, 상징적 의미, 단어 해석의 주요 쟁점, 본문의 맥락 안에 적합한 의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챗GPT는 특정한 단어가 구약에서 몇 차례 사용되었는지, 사용된 본문은 어디인지에 대한 정보도 학습되어 있었다. 또한 히브리어 음역을 제공하여 히브리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이 읽을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히브리어 음역 표기에 약간의 오류는 있었으나, 종합적으로 볼 때, 연구의 초기 과정에 필요한 히브리어 본문에 대한 활용은 가능할 것이다.

둘째, 선행연구에 대한 정보 및 분석을 위한 챗GPT의 활용성을 고찰하였다. 욥기 42장 6절에 대한 해석은 오랫동안 다수의 학자에 의해 진행되었기에 챗GPT는 욥기 42장 6절의 해석과 주요 논점에 대해 충분한 학습이 되어 있었다. 챗GPT는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세 가지 주요 견해로 구분하였으며, 각 견해에서 욥기를 일관성 있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논점을 비평할 수 있었다. 반면, 챗GPT는 자신이 제공한 자료의 출처를 정확히 제공하는데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자료의 출처가 인터넷 정보일 경우 어느 정도 정확한 출처를 제공하였지만, 자료를 인용한 특정 학자, 서적, 학술 논문, 페이지 번호를 요청하면 잘못된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제공하는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잘못된 출처를 제공하는 사례는 학술 연구에 있어 챗GPT를 활용하는 데 단점으로 드러난다.

셋째, 42장 6절을 하나님의 발언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 즉 학

습된 자료를 기반으로 학습되지 않은 새로운 해석 창출이 가능한지 검토하였다. 챗GPT는 몇 가지 해석적 가능성을 제안하였지만, 그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주요 해석적 견해에 기반하여 읍이 하나님의 말을 인용한 것, 혹은 읍의 발언 속에 암시적으로 하나님의 권위가 내포되어 있을 가능성을 언급한다. 42장 6절이 실제 하나님의 발언으로 해석할 가능성은 논의하지 않는다. 또한 42장 6절이 하나님의 발언일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변한다. 챗GPT는 기존에 학습된 자료를 넘어서는 새로운 해석적 가능성을 창출할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챗GPT가 새로운 학술 자료를 제공하였을 때 요약 및 분석을 할 수 있는지 평가하였다. 벤 더 릭트와 마틴의 학술 논문을 PDF 형식으로 챗GPT에 업로드한 후 자료에 대한 요약 및 비평을 요청하였다. 챗GPT는 짧은 시간 안에 42장 6절을 하나님의 발언으로 해석하고 있는 두 학자의 학술 논문을 요약 및 비평하였다. 제한된 시간에 많은 자료를 연구해야 하는 학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다섯째, 읍기 42장 6절에 대한 선행연구와 새롭게 추가된 자료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42장 6절의 해석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챗GPT가 기존에는 읍기 42장 6절을 하나님의 발언으로 해석하는데 부정적이었으나, 새롭게 추가된 자료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는 읍기 42장 6절을 하나님의 발언으로 해석하는 벤 더 릭트의 해석을 가장 명확한 해석으로 평가하였다. 챗GPT에 필요한 자료를 업로드할 경우, 계속 진행되는 논의에 새로운 정보를 포함하여 학습을 진행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종합하면, 본고는 구약 연구에서 챗GPT를 활용하면 단점보다 더 많은 장점이 있다고 평가한다. 챗GPT가 할루시네이션으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단점은 챗GPT 활용을 위한 문해력을 높임으로 줄여갈 수 있다. 또한 연구자가 기대한 것보다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

는 경우 적합한 질문과 세부적인 질문을 통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챗GPT가 짧은 시간 안에 필요한 정보를 찾아 주는 기능, 학술 자료를 업로드할 경우 분석해 주는 기능, 자연어를 통해 대화하듯 선행되었던 대화를 기억하여 논의를 진행하는 능력은 동료 학자와 의견을 교환하는 것 같은 활용성을 기대하게 한다.

## 참고문헌

- 김중규, “생성형 인공지능과 학술적 글쓰기”, 「작문연구」 59집 (2023), 37-64.
- 김창주, “인공지능과 구약성서: 무슨 상관이 있는가(욥 21:21)”, 「구약논단」 86집 (2022), 187-214.
- 박경식, “ChatGPT와 엔들의 신접한 여인 이야기(삼상 28:3-25)의 상호맥락성(intercontextuality) 읽기를 통한 구약신학적 비평 연구”, 「구약논단」 93집 (2024), 154-187.
- 소형근, “포스트휴머니즘 시대에 인간과 인공지능 이해하기: ‘강한 인공지능’의 등장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구약논단」 86집 (2022), 247-273.
- 안근조, “욥기 42:6 번역의 문제와 제안”, 「성경원문연구」 31 (2012), 48-56.
- Andersen, Francis I., *Job: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76).
- Balentine, Samuel E., *Job* (Macon, Georgia: Smyth & Helwys Publishing, 2006).
- Brenner, Athalya, “Job the Pious? The Characterization of Job in the Narrative Framework of the Book”,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43 (1989), 37-52.
- Clines, David J. A., *Job 38-42* (Word Biblical Commentary 18B,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2011).
- Cherney, Kenneth A. Jr., “Did Job ‘repent?’”, *Wisconsin Lutheran Quarterly* 109 (2012), 132-137.
- Curtis, John B., “On Job’s Response to Yahweh”,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98 (1979), 497-511.
- Fokkelman, Jan P., *The Book of Job in Form: A Literary Translation with Commentary* (Leiden: Brill, 2012).

- Good, Edwin M., *In Turns of Tempest: A Reading of Job, with a Translati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0).
- Fohrer, Georg, *Das Buch Hiob* (KAT 16, Gütersloh: Gütersloh Verlagshaus Gerd Mohn, 1963).
- Fox, Michael V., “Job the Pious”,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117 (2005), 351–366.
- Habel, Norman C., *The Book of Job* (Old Testament Librar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5).
- Hartley, John E., *The Book of Job*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88).
- Janzen, J. Gerald, *Job* (Interpretation, Atlanta: John Knox, 1985).
- Martin, Troy W., “Concluding the Book of Job and YHWH: Reading Job from the End to the Beginning”,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37 (2018), 299–318.
- Morrow, William S., “Consolation, rejection, and repentance in Job 42:6”,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05 (1986), 211–225.
- Muenchow, Charles, “Dust and dirt in Job 42:6”,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08 (1989), 597–611.
- Newsom, Carol A., “The Book of Job”, *The New Interpreter’s Bible* 4 (Nashville: Abingdon, 1996), 316–637.
- , *The Book of Job: A Contest of Moral Imaginati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 Patrick, Dale, “Translation of Job 42:6”, *Vetus Testamentum* 26 (1976), 369–371.
- Robertson, David, “The Book of Job: A Literary Study”, *Soundings* 56 (1973), 446–469.
- Van der Lugt, Pieter, “Who Changes His Mind about Dust and Ashes? The Rhetorical Structure of Job 42:2–6”, *Vetus Testamentum* 64 (2014), 623–639.
- Van Wolde, Ellen, “Job 42:1–6: The Reversal of Job”, W.A.M. Beuken ed., *The Book of Job*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1994), 223–250.

#### 검색어

읍기, 챗GPT, 인공지능, 해석, 구약

[ ABSTRACT ]

# The Possibility of Studying the Old Testament Using ChatGPT: Focusing on a New Interpretation of Job 42:6

Jun Kim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This paper is a case study aimed at evaluating the potential application of generative AI, specifically ChatGPT, in Old Testament studies. It critically analyzes and examines the major interpretative views of Job 42:6 and the novel interpretation of the speaker as God proposed by Pieter van der Lugt and Troy W. Martin. In the process of studying the primary interpretations of Job 42:6 and the new interpretation, this study explores the use of ChatGPT as a tool for academic research. The exploration focuses on its ability to collect information on the Hebrew text, to analyze prior studies on the passage, to generate new interpretations based on learned data, to analyze newly introduced scholarly materials, and to produce comprehensive opinions incorporating the additional data. The study concludes with the following findings.

First, ChatGPT generated the Hebrew text of the book of Job and demonstrated its potential utility in the initial stages of research by providing information on the lexical meanings, symbolic interpretations, key interpretive issues of Hebrew words used in the text, and their appropriate meanings within the context of the passage. Second, it provided significant information on previous studies of Job 42:6. Since

www.kci.go.kr

the interpretation of Job 42:6 has been extensively studied by many scholars over a long period, ChatGPT was well-versed in the interpretation and key issues related to this verse. Third, it appears to lack the ability to generate new interpretive possibilities not included in its learned data, such as understanding Job 42:6 as a divine statement. Fourth, when provided with new scholarly materials, ChatGPT was capable of analyzing and critiquing the new data, which can be helpful to scholars who need to study a large volume of material within a limited time. Fifth, when uploading necessary materials to ChatGPT, it can incorporate new information into its ongoing discussions, thereby demonstrating a capacity for adaptive learning. In summary, despite the drawback of potentially providing incorrect information due to hallucination, ChatGPT can be a valuable tool in Old Testament studies when utilized instrumentally in the research process.

key words

The Book of Job, ChatGPT, AI, Interpretation, The Old Testament

투고일: 2025년 01월 20일

심사일: 2025년 02월 07일

게재 확정일: 2025년 02월 15일

www.kci.go.kr